

코로나19로 재난·재해 기금 '바닥' 수해 복구·이재민 구호 자금 '비상'

광주시·전남도

특별재난지역 빠른 지정 촉구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친 광주·전남에서 설상가상으로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마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면서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초부터 몰아친 코로나19 대응에 적립해놓은 기금 상당액을 집행하면서 긴급 수해 복구 자금은 물론 이재민 구호 자금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6·7면〉

이에 따라 시·도는 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의 수해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재난지원이 늦춰질 복구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제2, 제3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는 폭우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피해 범위가 넓어 피해액을 제대로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올해 2월 코로나19 집단발병 후 6월 27일부터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방역대응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1150억원에 이르지만, 코로나19 관련 방역에만 벌써 760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의무예치금 230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바닥인 셈이다.

초유의 물난리를 겪은 전남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가 올 상반기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304억원이었으나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204억원을 사용했다. 남아있는 기금 100억원 가운데 99억원은 법정 의무 예치금이어서 즉시 집행 가능한 기금 규모는 1억원에 그친다.

전남도가 이날 피해액을 임시집계한 결과, 공공 부문 800억원, 민간 부문 300억원 등 최소 1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지원 없이 전남도가 관리·운용 중인



구례 5일시장 수해 복구 10일 오후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5일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빗물에 젖어 훼손된 폐기물들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금만으로 복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주민 피해 복구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재민 지원에 쓰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 초 360억원을 웃돈 적립금은 현재 3억여원 수준이다. 지난해 이월 적립금 261억원, 코로나 19 추경을 통해 추가 97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4억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해 상반기 적립금은 363억원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긴급생계비 등에 359억원을 집행하면서 남은 기금은 3억7000만원 뿐이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법정 의무 적립금이 있으나 재해구호법 예외 규정에 따라 시·도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무 적립액까지 동원해 쓸 수 있다.

전남도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구례 등 7개 시군에 구호 자금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수해 점검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광주와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

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애초 복구비의 50%만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최고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집중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한 예비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에서 엄청난 수해까지 겹쳐 막막하다"면서 "긴급 복구와 기반 시설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민간영역에선 지원받기 어렵고, 지원액도 미미해 수해주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SOC 복구 등에 집중되고, 민간 부분 지원은 체계가 있다"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역대급 호우 피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총리 "전남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전남, 전북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

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靑 정무수석 최재성·민정 김종호·시민 김제남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된 듯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 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들을 11일 임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청와대 수석의 일부 교체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치 복원 및 국민



최재성 정무 비서관, 김종호 민정 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실장의 거취와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등 통합당 지도부 구레 찾아 위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수해 피해가 큰 구례를 찾았다.

독이 무너지고 침수 피해가 막대한 지역을 방문한 것인데, 통합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지역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당 지도부의 호남 방문은 예전에 없던 일로, 오전 김 위원장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구례를 찾은 자리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 위로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다"면서 "집 처마까지 물이 다쳤고, 8일장 준비해 놓은 것도 다 떠내려간 것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민간 부문에는 큰

도움이 안될 수 있는 만큼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피해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나 피해가 커 말이 안 나올 정도다"면서 "피해 복구에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일손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며 "호남 지역을 돕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42명이 구례로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온다"면서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도 당 협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남원과 구례, 곡성에서 복구작업을 벌일 예정이 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구례에서 목고 초선 의원들을 2개 조로 나눠 구례 오일장과 하동 화개장터에서 봉사활동을 이끈다.

김위원장의 이날 호남 방문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5면
굿모닝 예향-여수	▶18-19면
KIA의 미래 LG전력을 보면 안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코로나19 극복 전남희망일자리사업

2020. 8월 ~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로 생계위험을 받고있는 취업 취약계층 및 실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사업시기	2020. 8월~12월
급여	시급 8,590원(최저임금) ※ 근로조건 : 주 15시간~30시간
사업대상	실직자, 휴·폐업 소상공인, 청년 미취업자,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주민, 취약계층
신청문의	시·군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 제공(10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방역지원 • 문화·예술환경 개선 • 청년지원 •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 공공업무 긴급지원 •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농·어촌경제활성 지원 • 기업 밀집지역 정비 • 공공휴식공간 개선 • 재해예방